

201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문제 해설

■ 인문계 ■

※ 아래의 채점 기준은 이번 모의논술 평가에만 적용되는 것임.

(1) 시행 취지

이번 모의 논술은 성대 인문계 논술의 전형적인 패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하나의 단일 주제 하에서 4 문항이 내용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패턴을 유지하였으며, 또 문항들도 요약형, 평가형, 자료해석형, 대안제시형 등 기존의 유형들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단일 주제가 아니 복수 주제가 도입될 수 있으며, 문항 수(점수 비중)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문항의 유형들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2) 평가 항목과 비중(점수)

전통적으로 본교의 논술고사는 작문 능력 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 평가 능력, 자료 해석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설명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이러한 방향성은,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 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이번 모의 논술의 평가 항목과 점수 비중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평가 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적 전개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 및 어법 준수 여부: 15%
- ④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항목 2, 3, 4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 글의 형식, 내용, 맥락을 감안해서 달라질 수 있다.

■ 등급별 점수(문항당 25점)

- A 등급: 25점
- B 등급: 20점
- C 등급: 15점
- D 등급: 10점
- E 등급: 5점

(3) 세부 평가 지침과 채점 등급

□ 문제 1

아래 제시문(가-라)을 하나의 주제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문제 해설>

제시된 글들의 논지를 파악해 대립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논지를 축약적으로 서술하라는 문항이다. 제시문에서 키워드들을 포착해 이들을 활용,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이다.

크게 보면 제시문 (가)와 (다)는 폭력은 어떤 경우든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문 (나)와 (라)는 ‘인도주의’ 혹은 ‘정의’와 같은 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폭력이 정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각 제시문 별로 핵심 논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 폭력 사용은, 비록 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또 다른 폭력을 부르거나 파괴성이 증대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제시문 나: 인간 사회에서 이해의 차이에 기인한 대립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대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자기 방어와 안전을 위한 무력 사용은 정당하다).

제시문 다: 폭력은 동물적 분노심에 기인하는 수치스런 행동으로, 인간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앗아갈 뿐이다.

제시문 라: 부당한 폭력에 의해 탄압받는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경우 폭력적 개입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며, 이는 저들을 위협에서 구하지 못했을 경우 우리가 느끼게 될 부끄러움에서 기원한다.

<채점 등급>

- A: 올바른 분류와 핵심 논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폭력’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함에 있어 제시문 간의 미묘한 관점 혹은 근거의 차이까지 드러내 기술하고 있는 답안
- B: 올바른 분류와 핵심 논지를 담고 있을 뿐, 각 제시문의 서로 다른 내용적 특징이 덜 반영된 답안
- C: 폭력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피상적으로만 대비시켜 기술한 답안
- D: 제시문 분류에 실패하거나, 분류했더라도 서술이 C 등급에 못 미치는 답안
- E: D 등급에도 못 미치는 답안

□ 문제 2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보기>의 무력개입의 정당성을 평가하시오.

<문제 해설>

좋은 답안의 포인트는 우선 <보기> 상황의 특징, 즉 제 3자에 의한 ‘인도주의적 무력 개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를 지지하거나 비판함에 있어서 그 주요 근거를 제시문으로부터 명확히 추출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력 개입의 정당성을 지지할 경우

[문제 1]의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폭력 사용은 정당하다”는 입장에 근거할 경우 <보기>의 인도주의적 무력 개입은 아주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제시문 (라)는 정확히 <보기>의 폭력적 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답안에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력 개입의 정당성을 비판할 경우

[문제 1]의 “폭력 사용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에 근거할 경우 <보기>의 무력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제시문 (가)에 잘 나타나 있다. 거기서 폭력적 수단이 지닌 한계,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은 언제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위의 두 경우를 모두 적었다고 해서 더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함.

<채점 등급>

A: 위의 문제 해설 내용을 포함하되, 비판 혹은 지지의 근거들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술된 답안

B: [문제 1]의 입장들에 근거하여 <보기>의 상황을 적절히 비판하거나 지지하고는 있지만, 비판이나 지지의 근거들을 특정 제시문으로부터 추출해서 명확하게 추출하여 기술하지 못한 경우

C: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보기의 상황을 지지 혹은 비판하지만, <보기>의 사례가 지닌 특징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비판이나 지지의 근거 또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한 답안.

D: [문제 1]의 입장들과 보기 상황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답안, 또는 문제 해결의 수준은 C 등급이나 서술이 명확성이 떨어지는 답안

E: D 등급에도 못 미치는 답안

□ 문제 3

아래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현상이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해석가능한지 상세히 밝히시오.

<문제 해설>

문제의 표와 그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폭력의 악순환’, 즉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하는 현상임.

<표 1>은 (가)~(라) 네 국가별로 연간 폭력시위 빈도와 그에 따른 경찰의 최루탄 사용량(톤)을 보여주고 있음. 만약 (가) 국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시위 빈도 20회 당 1톤의 최루탄이 사용되는 셈이다. 따라서 (나) 국가처럼 1,050회라면 52.5톤의 최루탄이 사용되는 비율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73톤으로 이에 비해 약 40% 정도 더 높다. 마찬가지로 (다) 국가는 1,400회의 시위에 70톤을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2톤으로 46%정도 더 사용했다. (라) 국가의 경우는 600회에 30톤을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40톤으로 33%정도 더 사용했다. 따라서 폭력시위 빈도가 늘어날수록 경찰의 최루탄 사용량은 정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한 전 세계 연평균 사망자 수(명)를 보여줌.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전의 연평균 사망자를 보여주는 원편의 진한 막대그래프들을 보면, 전 세계 모든 지역이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이 제외된 전 세계 지역이건 간에 그 높이가 같다. 즉 전 세계 지역에서 연평균 사망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를 보면, 이라크를 제외한 두 번째 오른편 막대그래프의 높이가 전 세계를 모두 포함한 첫 번째 오른편 막대그래프의 높이에 비해서 약 반 밑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라크에서의 연평균 사망자 수가 이라크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사망자 수를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둘째와 셋째 오른편 막대그래프의 높이 차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연평균 사망자 수를 보여준다. 즉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테러 사망자가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분 중 다수는 이라크에서의 증가이고 다음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증가분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연도별 전 세계적 테러범죄 추이를 보여주는 막대그래프이다. 거기서 우리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하여 이후 전 세계로 테러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 등급>

- A: 자료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그 해석을 근거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폭력의 악순환’ 즉,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하는 현상임을 정확히 지정한 경우
- B: 자료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그 해석을 근거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폭력의 악순환’ 즉,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하는 현상임을 지정한 경우
- C: 자료들을 어느 정도 해석하였으나,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폭력의 악순환’ 즉,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하는 현상임을 지적한 경우

D: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했고 근거도 부족하지만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폭력의 악순환’ 즉,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하는 현상임을 지적한 경우

E: 자료의 내용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폭력의 악순환’ 현상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경우

□ 문제 4

아래 <표 3>과 <표 4>를 활용하여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문제 해설>

<표 2>는 2003년 3월~2010년 10월 기간 중에 발생한 이라크 전쟁 관련 사망자수를 보여준다. 이라크에 공격해 들어간 미국과 영국에 비해 이라크의 군인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것은 군사 전력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더 중요한 사항은 미국과 영국의 민간인 사망자가 비교적 소수인데 비해(주로 기자를 포함한 테러 희생자들 임) 이라크의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 군인사망자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전쟁을 통해서 정치·군사적 안정이 깨지면서 이라크 지역 내에서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해 테러발생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사망자를 포함한 것이지만 한편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오폭피해로 민간인 사망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표 3> 역시 <표 2>와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2007년~2010년 기간 중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의 군인사망자가 미국과 영국의 군인사망자보다 많은 것은 앞 표의 이라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사망자가 군인 사망자보다 많은 현상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친정부세력이 장악한 지역에서보다 반정부세력이 장악한 지역에서 2배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쟁을 계기로 하여, 아프가니스탄 군대나 친정부 무장세력에 의해 반정부세력 장악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학살이 벌어진 것을 보여주는 증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의 견해에 대한 논술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폭력의 사용이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폭력은 없다”는 논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경우 폭력 사용이 많은 희생을 불러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폭력을 제거하고 나아가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 즉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에 긍정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방향의 논술이 될 경우에는 견해를 지지해줄 수 있는 적절한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채점 등급>

A: 표들을 매우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활용해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매우 논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B: 표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활용해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매우 논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C: 표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활용해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지만 논리적 전개가 부족한 경우

D: 표들에 대한 해석을 어느 정도 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경우

E: 표들에 대한 해석 및 그것의 활용 없이 자신의 견해만을 비논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 [문제 4]는 [문제 2]와 내용상 연관되는 것이지만, 단서 조항이 다르므로 평가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